

원희룡 장관, “사회초년생 올리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하겠다”

-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및 민관협업 중요성 강조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(수) 한국통물류협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,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강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였다.
- 원장관은 지난 3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 유튜버들로부터 택배차 강매사기에 대해 이야기 들은 후,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었다.
- 그간 국토부는 업계·종사자 간담회,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구인사이트 관리강화, 사기 예방 및 피해 신고 센터 운영 등의 대책(안)을 마련하였으며,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자와 강매사기 관련 피해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원 장관은 청년구직자, 구인플랫폼, 한국통합물류협회, 한국직업정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, 강매사기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, 청년구직자 및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택배차 강매사기는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을 빛의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민생사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”며, 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,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”하였다.
- 아울러 “강매사기 예방은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인사이트, 택배 대리점, 택배사, 관련 협회 등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”면서, “강매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해 줄 것”도 당부하였다.

2023. 6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